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미가 6장 6 - 8절)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여 년 전에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 가서 도시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한 사람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 도시의 크고 작은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민족과 국가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 통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복을 구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의한 재물을 쌓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며 강포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미 6:10-13).

지금 이 나라는 언제 암초에 걸릴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비리와 대립과 권위가 상실된 와중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선교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 뻔한데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청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영어로 mercy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대립은 계속 될 것이고 다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 뻔한데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청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선교의 결실은 사랑과 봉사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지 않고서는,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사랑과 섬김에서만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삶은 어근이 같습니다. 영어로 사랑은 love이고 사는 것은 live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진보의 척도는 가진 것과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받는가에 있습니다. 사랑을 토대로 한 구제와 봉사의 삶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야만 병든 사회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외에 다른 묘약이 없습니다.

사회는 언제나 동정과 이해와 사랑과 봉사의 조용한 대다수가 깔려있을 때 저력을 갖게 됩니다.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 강해지고 힘이 넘치게 됩니다.

### 1. 정의를 행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8절).

오늘 이 나라는 비리와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것을 들춰봐도 더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망할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섬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복 받는 나라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길 뿐입니다.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나라는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의인들의 기도 소리가 오늘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외형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흥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후세인이나 탈레반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지 부름 받은 내가 요셉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굽은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며 정의로써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 2.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며”(8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곳저곳에서는 대립과 단절로 말미암은 다툼으로 진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

### 3. 하나님과 동행하라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8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창 5장).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365세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했습니다(히 11장). 동행했다는 것이 히브리적 표현이라면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헬라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염불과 다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상한 심령과 민족을 치료하고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애굽과 앗수르의 침략으로 망하게 된 조국이 절망의 난국을 당할 때마다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절망과 불가능을 극복하게 합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 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십니다.

# 2003년 2학기 장학금 수여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천국일꾼 양성이라는 목적을 따라 우리교회는 연간계획에 따라 지난 1학기에 이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학기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에 따라 먼저 장학위원회(위원장 전기섭 장로)는 중고등부와 대학생(신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중등부 5명, 고등부 5명, 대학생(신대원 포함) 8명 등 총 18명을 선발하였다. 2학기 장학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찬양예배에 필히 참석하여 장학금을 수여 받아야만 장학금이 수여된다고 장학위원회는 전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업을 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중등부: 손정우(휘문중 2) 홍지혜(진선여중 2) 강보경(개포중 1) 홍누리(정원중 1) 김은정(정원중 1) 이상 5명
- 고등부: 최화미(현대고 1) 이지민(은광여고 1) 인사라(충현고 1) 최인애(청담고 1) 이인영(승의여고 3) 이상 5명
- 대학생: 손재영(장신대 신대원 1) 김은정(전국대 1) 박승현(한양대 3) 박현주(서울장신대 1) 홍유미(나사렛대 1) 허승연(한양대 3) 김연철(중앙대 4) 이정휘(상명대 4) 이상 8명

## 새가족부 홈커밍데이

### 8월 30(토) 오후 3시 801호 만나홀에서

새가족부 홈커밍데이가 오는 8월30일(토) 오후 3시에 우리교회 8층 만나 홀에서 열린다.

1년 동안 우리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홈커밍데이 행사는

올해로 3번째로 준비되며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들에게 교회의 모든 봉사부서와 교구를 소개하고 정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새가족들의 깊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 시작되다

### 금주 중 안내 팸플릿 발송 예정

오는 9월8일(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한국교회개신연구원(원감 민순구 장로)주최로 준비가 시작되었다.

먼저 기독 공보를 비롯한 교계의 신문에 안내광고를 게재하였으며 한편으로 그동안 참석하신 회원들을 대상으로 순례자와 팸플릿을 동봉한 우편물을 금주 중에 발송하게

된다. 목회 전문화와 교회성장을 주제로 열리게 되는 금번 제 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 바자준비모임

### 주일 3부예배후 101호

바자준비위원회(위원장:김광신 장로)는 9월3일(수)부터 개장하는 2003년 열린바자를 위해 준비모임을 매주일 갖기로 하였다. 첫모임은 오늘 3부예배 후 101호실에서 있다. 부서별위원은 다음과 같다.

- 기획부: 부장 - 임상현 차장 - 전기섭  
실행위원 - 우지원
- 재정부: 부장 - 오정수 차장 - 신용식  
실행위원 - 김경희, 이인선, 이인숙
- 판매관리부: 부장 - 정병무 차장 - 조정식  
실행위원 - 김승주 김관홍 오승민
- 시설부: 부장 - 하영수 차장 - 박두영  
실행위원 - 이승우 이양철 이인근 장두현 최광성
- 섭외부: 부장 - 김세재 차장 - 최학인  
실행위원 - 유이상 이강인 탁경준
- 홍보부: 부장 - 노송성 차장 - 박정선  
실행위원 - 김시환 신동기 허숙

## 승용차 자율요일제 협조

서울시와 각 구청은 지난 6월26일부터 도시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감소,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특요일에 차량운행을 않는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시민운동으로 실시하고 있어 우리교회도 이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참여는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강남구의 경우 지하철 정액권(5000원)을 1회 지급하고 구내 공영주차장 주차료10%를 감면한다고 한다. 성도들의 많은 협조바란다.

### 광복절 특집

## 그때 주님은 어디에...

### 신동기 권사(12교구)

오늘도 해가 뜨는  
아우슈비츠 죽음의 땅!  
그곳에 깊은 침묵이 흐르고  
생명을 관통하는  
그대들의 붉은 가슴

타오르는 티그론 독가스 연기에  
한줌의 재로  
역사 위에 흩어져  
피속으로 흐르고  
백속깊이 찾아든다

지상에서  
제일 먼 땅끝  
아우슈비츠!  
길게 뻗은 철길 따라  
시퍼렇게 질린 죽음이  
짐짝처럼 실려온다

휘두르는 악마의 광기  
메스로 시뻘건 핏덩이를 자르는  
생체실험의 개처럼 끌려가는  
소리없는 통곡!  
처절한 몸부림의 끝은 어디인가

젓빛교수대 갈고리에  
부르튼 역사가  
비장하게 걸려있고  
반세기를 가로질러  
흐르는 피!  
지금도  
혼돈 속에 출렁인다

하늘이여!  
땅이여!  
그대들은  
아우슈비츠 어깨를 짊고 일어나  
흐느끼며 말한다

주님은 어디에?  
주님은 어디에?

그는 여기에  
그는 죽음의 땅 여기에!  
아우슈비츠 교수대  
갈고리에 걸려 계셨고  
티그론 깨스통이 열릴 때마다  
죽음의 연기 속에 질식해 계셨고  
생체실험 메스 끝에 걸려 계셨다

살과 뼈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우슈비츠 죽음의 땅을  
하나님 안에 두셨다



#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8월4일(월) 파송받은 단기선교팀은 팩스와 e-mail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8일(금) 오전 전화로 현재 상황과 전도활동을 알렸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부

## 나소정(청년부)

썩 잡바이.(평안하십니까?)

지난 4일 오전 10시 한국을 떠난지 8시간 만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경에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직후, 선교지인 프놈펜 대학생 교회로 직행하여 그들과 함께 먼저 기도회를 갖고 임학수 선교사로부터 이 땅의 98%가 불교신자이며 집집마다 불상을 놓고 사는 이상으로 가득찬 영적 전투의 현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튿날인 5일 오전 왕립 프놈펜 대학교의 학생들과 더불어 성경공부와 교제의 시간을 갖으며 이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운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들과 오는 주일날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2차 선교지인 프놈펜에서 3시간, 168km 떨어진 콩뽕통으로 이동하여 우리 선교팀 일행과 대학생 교회의 8명이 동행하게 되어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현지어를 통역하고 노방전도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어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 모여 기도도 준비하여 온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회와 선교전략 점검, 보고회를 갖으며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우리 단기선교팀의 선교활동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계획대로 주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으나 장애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선 우

리와 생활리듬이 다른 현지인들은 무더운 낮에는 외출을 하지 않아 만나기 어렵고 또한 캄보디아는 현재 선거 직후여서 정치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사회 분위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활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콩뽕통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의 개척교회 신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미용 봉사와의료 봉사 그리고 방역service까지 우리의 선교활동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곳 캄보디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 뿐 아니라 가축도 심하게 말라있는 혈벗고 굶주린 수많은 생명들과 열대성 전염병, AIDS가 창궐하고 거리에는 창녀들이 넘치고 심각한 먼지와 파리 모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선두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김운호 목사님 그리고 세 분장로님들, 총괄을 하시는 최형열 집사님, 하루 평균 150여명을 진료하는 의료봉사팀, 매일 찾아오는 6-70명의 현지인들을 사랑으로 맞아 아름답게 머리를 정리해주는 이미용 봉사팀이 분주히 활동 중이고 청년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를 열어 성경공부와 스킷 드라마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 이 땅의 벌레뿐 아니라 듯한 우상 박멸에도 애쓰는 방역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식사팀, 촬영 기록을 담당할 기록팀이 움직이고 있으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한가족 한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콩뽕통 시내로 나가 노방전도를 펼쳤습니다. 우리를 통해 마치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듯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기쁨을 표현하며 어린



이처럼 아무런 의심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획하였던 일정이 다소 변경되고 계속 도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승리하게 하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가난하고 혈벗은 만큼 복음에 더욱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이 이들의 마음에 뿌린 씨가 싹 틔우는 속도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이가 없다는 말씀을 새기며 8일(금)에는 세 번째 선교지역인 뽕스라로 이동하여 선교활동을 펼칩니다. 앞으로 뽕스라 교회 및 지역봉사활동 프놈펜 대학생 교회 및 왕립 대학교 선교, 한국인 선교사 교회에서의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귀국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뽕스라 예수 뽕너오 짜모이 여웅(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농촌전도봉사대- 신덕교회

# 복음의 씨앗이 열매맺도록

## 유일상 집사(신덕교회 농촌전도대 전도분과장)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서울교회 농촌전도대가 이곳에 도착하여 술선수범하시는 한상은 지도목사님과 김태기 장로님의 인도하심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일사분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신용식 집사(총무)께서 꼼꼼히 짠 계획대로 4일 동안 각 분과별로 마치 기계속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모든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축산업을 하고 있어 집과 집사이의 거리가 수백 미터씩 떨어져 있었고 축사에서 풍겨 나오는 짐승들의 배설물의 악취와 아무리 쫓아도 달려드는 파리 떼의 습격을 무릎 쓰고 전도분과에서는 사람이 보이는 곳이면 축사로 논밭으로 마을회관, 노인정 할 것 없이 살살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료와 이 미용분과에서는 침술치료와 이미용 서비스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교육과 찬양분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흥겨운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였고 취사분과에서는 볶우와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도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으로 메뉴를 짜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였으니 오로지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날, 밤새도록 온 천지를 삼킬 듯한 폭풍우가 몰아쳐 모든 취사 시설물과 이 미용시설이 날아가지 않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으나 아침이 되자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일기를 화창케 하셔서 찢어지고 부서진 시설물을 급히 복구하며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간절한 마음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옥도에 떨어져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도록 생명의 성령님이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시설자재와 미장자재를 싣고 일꾼까지 함께 5일 동안 이곳에 미리 와서 취사시설, 샤워실, 화장실, 이 미용시설, 미장일로 봉사해주신 우리교회 김운석 성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물질과 기도로 적극 후원해주신 성도여러분께 전도대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 메시아 연습 시작되다

지난 8월 2일(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다해 성실히 연습에 임할 것과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달라는 이중윤 목사님의 시작 기도로 메시아 연습의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의 연합찬양대가 구성되어 헨델의 메시아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지가 어언 35년.

올해는 서울교회가 주관이 되어 12월 9일에 찬양하게 된다.

탄생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대기가 묘사된 오라토리오의 메시아는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24일에 걸쳐 작곡되었고, 1742년 더블린에서 초연 되었다. 그 이듬해 런던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유명한 코러스 할렐루야가 연주되자 당시 영국 왕 조지 2세가 감동을 받은 나머지 벌떡 일어나서 청중들이 따라 일어났고 이 일이 유래가 되어 지금도 할렐루야가 연주되면 많은 이들이 기립하여 경건한 마음을 표시한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찬양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평생에 한 번은 해볼만한 곡이나 그 기회는 좀처럼 우리

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교회가 주관하게 된 이번 연주에 서울교회 찬양대원은 물론 자원자, 혹은 타 교회 교인들도 권면하여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서울 교회 연합 찬양대의 구성은 1부(가브리엘 찬양대), 2부(할렐루야 찬양대), 3부(임마누엘 찬양대), 4부(호산나, 시온, 베들레헬, 자원자)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출석이나 공저 사항 등 행정을 위한 것으로 첫 번 연습의 출석은 162명, 그러나 교회는 250명 정도를 희망하고 있다.

당일 메시아 연주의 지휘는 백효죽 장로가 맡게 되는데 특히 이번 연주에 사용되는 악보는 백효죽 장로가 번역한 것으로 기존의 악보와는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여러 번 메시아를 연주한 경험이 있는 찬양대원들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연습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휘를 맡은 백 장로는 강조한다.

연습 시간은 매주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이며 4시부터 5시까지는 파트 연습(남성: 허희철 집사 502호, 여성: 백효죽 장로 501호)을 하고 5시부터 6시까지 501호에 모여 연합으로 연습한다.

허 숙(편집부)

## 탈북자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자!

십만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아사의 위협과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살 권리는 목살당한 채 중국정부는 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 장로)는 2001년 5월 11,800,495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UN에 제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수많은 탈북자에게 먹을 것과 육신의 살 권리를 찾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들이 정말 탈북한 의미를 찾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동족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섬없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교회가 탈북자를 위한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는 이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선교며 이것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세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위대한 유산

### 노 선균(대학부)

2003년 6월 29일, 할머니(고 천병희 권사님)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 아직 그 자리에 누워계실 것 같아서 방을 둘러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 가물가물해서 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강하게 기억에 남는 할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입니다.

건강하실 때 할머니는 오전에 1시간씩 매일 기도와 찬송을 하셨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기도의 소리에선 교회를 위한 기도와 교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꼭 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할머니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겨준 선물과도 같은...

지금 할머니는 천국에서 될 하고 계실까 생각해 봅니다.

할머니의 기도하시는 뒷모습이 다시 보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 기관별 식당 봉사자

8.10(주)-루디아여전도회 817(주) - 뽕뽕여전도회  
8.24(주)-마리아여전도회 8.31(주)-에스터여전도회

### 동정

■ 이사: 유근중 집사, 배은희 집사가정 삼성동 98-11 삼보아그네빌 101-1301 (전화:544-2836)

■ 금주의 식사: 전기집사로 원영에 집사가정(12교구) (은혜중에 퇴원을 감사하며)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철에 영육이 건강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 70인전도대를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